

삼국시대의 평양-서울 축선 전쟁 연구

- 기원전 1세기~5세기를 중심으로 -

許 重 權

(육군3사관학교 교수)

1. 서 론
2. 백제의 세력확장기 전쟁
3. 고구려, 백제의 주도권 쟁탈기 전쟁
4. 결 론

1. 서 론

본 연구는 기원전 1세기~5세기 기간 중 발생한 전쟁 중 평양-서울 축선¹⁾에서 치러졌던 여러 전쟁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6하원칙에 의한 전쟁분석 방법²⁾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6

1) 본고에서 사용한 '평양-서울 축선 전쟁'이라는 용어는 삼국시대 주요 정치세력의 중심지 역이었던 평양과 서울 사이에 치러진 전쟁 중 평양-개성-파주-서울을 잇는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을 의미한다.

2) 6하원칙에 의한 전쟁분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참고, 『한국 고대 전쟁사 연

하원칙에 의한 전쟁 분석 방법은 언제(전쟁의 시간적 요소), 어디서(전쟁의 공간적 요소), 왜(전쟁 원인), 누가(쌍방 전투력 비교), 무엇을(전쟁 결과), 어떻게(구사된 전술전략)의 6개 요소로 전쟁을 분석하는 것의 의미한다.

삼국시대의 기원전 1세기~5세기에 평양-서울 축선에서 발생한 전쟁사례를 관련사료에서 찾아보면 총 19회의 전쟁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시기별로는 기원전 1세기(3회), 1·2세기(0회), 3세기(3회), 4세기(12회), 5세기(2회) 등으로 확인되며, 전쟁의 방향은 평양에서 서울로 향한 공격이 9회였으며, 서울에서 평양으로 향한 공격은 10회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확인된 총 19회의 전쟁사례를 삼국간의 대내적 관계 변화 및 대외적 상황과 관련을 지어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제1기는 한강 유역에 정착한 백제가 주변 세력 및 대동강 유역에 위치했던 중국 세력과의 투쟁을 통하여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하던 시기로서 백제의 세력 확장 전쟁기, 제2기는 대동강 유역의 중국 세력이 고구려에 의하여 축출 당한 이후 힘의 공백 상태가 된 대동강에서 한강까지의 지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상호 투쟁한 시기로서 고구려의 평양 천도와 장수왕의 한성 점령으로 인하여 고구려가 이 지역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고구려와 백제의 주도권 쟁탈전쟁기³⁾ 등이다.

아래에서는 평양-서울 축선에서 삼국시대의 기원전 1세기~5세기에 발생한 총 19회의 전쟁사례를 위에서 언급한 2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전쟁을 전쟁분석 6하원칙에 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방법론, 『군사』 42, 2001, pp. 221-251에서 논급한 바 있다.

3) 삼국의 力關係를 고찰한 논문들은 중국 대륙의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체로 3기로 나누어 설명한 경우(李萬烈, 『三國의 抗爭』,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78)와 시대 구분을 좀 더 세분하여 6기로 나누어 설명한 경우(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로 구분된다.

2. 백제의 세력확장기 전쟁

제1기는 백제가 건국한 이후부터 고구려에 의하여 대동강 유역의 중국 세력이 축출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 중에 평양-서울 축선에서 발생한 전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A-1 기원전 9년 : 말갈이 백제의 북경을 공격(온조왕 10년)⁴⁾
- A-2 기원전 2년 : 낙랑이 백제의 위례성을 공격(온조왕 17년)⁵⁾
- A-3 기원전 1년 : 침공한 말갈을 백제가 칠중하에서 대파(온조왕 18년)⁶⁾
- A-4 246년 : 백제가 낙랑을 공격(고이왕 13년)⁷⁾
- A-5 286년 : 백제가 대방을 침범한 고구려를 공격(책계왕 원년)⁸⁾
- A-6 298년 : 중국 군현세력이 백제를 공격(책계왕 13년)⁹⁾
- A-7 307년 : 백제가 낙랑의 서변을 공격(분서왕 7년)¹⁰⁾

제1기 전쟁을 개관해보면 평양→서울 방향의 공격이 7회 중 4회 발생하였고 백제 건국 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평양 방향의 공격은 3회 발생하였고 이 경우들은 모두 3세기 후반과 4세기 초에 집중되어 있음이

-
- 4) 冬十月 靺鞨寇北境 王遣兵二百 拒戰於昆彌川上 我軍敗績 依青木山自保 王親帥精騎一百 出烽峴救之 賊見之即退(백본기)(본고에서 백본기는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고본기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신본기는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지칭한다).
 - 5) 春 樂浪來侵 焚慰禮城(백본기).
 - 6) 冬十月 靺鞨掩至 王帥兵 逆戰於七重河 虜獲酋長素牟送馬韓 其餘賊盡坑之(백본기).
 - 7) 秋八月 王乘虛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백본기).
 - 8) 古尔王 十一月薨 卽位 ……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 王娶帶方王女寶菓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且城蛇城備之 (백본기).
 - 9) 秋九月 漢與貊人來侵 王出禦爲敵兵所害薨(백본기).
 - 10) 秋九月 漢與貊人來侵 王出禦爲敵兵所害薨(백본기).

확인된다.

(1) 원 인

A-1과 A-3은 백제의 성장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세력권이 침식당한 것으로 인식한 말갈부족이 백제를 공격한 것으로 이해된다. A-1 전투 이전인 온조왕 3년과 온조왕 8년에도 말갈은 백제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¹¹⁾ A-2는 백제의 북쪽 방면으로의 진출에 위협을 느낀 낙랑이 백제의 위례성을 공격한 것이다. 이 전쟁의 원인 또한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백제의 북쪽 방면으로의 진출에 위협을 느낀 낙랑이 백제를 공격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백제는 건국 직후인 온조왕 4년에 대동강 유역의 낙랑에 사신을 파견하여 우호관계를 수립하였으나,¹²⁾ 온조왕 8년에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세운 것으로 인하여 백제와 낙랑은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으며,¹³⁾ A-2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인 온조왕 11년에 낙랑이 말갈을 시켜 백제가 세운 병산책을 공격한 적이 있었다.¹⁴⁾ A-4는 위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낙랑 및 대방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자, 낙랑의 군사력이 고구려 방향으로 집중된 허점을 이용하여 백제가 북상하여 낙랑을 공격한 것이다. A-5는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대방이 백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대방왕녀를 부인으로 이미 맞이했던 백제왕이 백제군을 보내어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다. A-6은 A-2와 같이 백제의 북쪽 방면으로의 진출에 위협을 느낀 낙랑이 백제를 공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A-7도 고구려의 공격에 의하여 멸망되기 직전 약화되고 있던 낙랑에 대하여 백제가 그 지배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격한 것이라 여겨진다.

11)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3년 및 8년.

12)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4년.

13)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8년.

14)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11년.

제1기 전쟁의 원인을 종합해보면, 평양→서울 전쟁은 건국 초기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백제에 대하여 이미 이 지역에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낙랑과 말갈이 백제의 성장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공격한 정치적인 요소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확인되며, 백제가 고대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진 3세기 이후에 발생한 전쟁은 주로 서울→평양 방향으로의 전투였는데, 이것은 고대국가로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백제가 대동강 유역을 향하여 그 영역을 확장하려고 한 정치적인 요소 외에, 군사적인 요소(A-4)와 외교적인 요소(A-5)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시 간¹⁵⁾

먼저, 전쟁이 발생한 月(음력)과 季節에 대하여 살펴보자. 서울→평양 방향인 A-4, 5, 7의 경우는 각각 8월, 11월, 2월에 발생하였으며, 평양→서울 방향인 A-1, 2, 3, 6의 경우는 각각 10월, 봄, 10월, 9월에 발생하였다. 양 방향 전투를 통틀어 여름에 한번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평양→서울 방향 전쟁은 주로 9월과 10월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전쟁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치러졌는가? 하는 전투 지속기간을 살펴보자. 제1기에 발생한 전투들은 모두 사료에 전투지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투발생 지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A-1, A-3의 경우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투경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A-1 전쟁의 경과는 ① 말갈이 백제의 북쪽 지방을 공격, ② 침략사실을 보고 받은 온조왕이 군대를 파견하였고 양측의 군대는 곧미천에서 접전, 패배한 백제군이 청목산으로 후퇴하여 은거, ③ 파견된 부대의 패배 사실을 보고 받은

15) 전쟁의 시간적 개념에 대하여는 줄고, 『신라와 로마의 전쟁사 비교(1)-시간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 비교학적 연구』, 『3사교 논문집』 52, 2001. 5 참조할 것.

온조왕이 직접 출동하여 청목산의 백제군 부대를 구원, ④ 말갈의 철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A-3 전쟁의 경과를 ① 말갈이 백제의 북변을 공격, ② 변경에서의 전투발생 보고를 받은 온조왕이 군대를 인솔하여 칠중하로 가서 접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온조왕 3년에 ① ②의 과정으로 치러진 전쟁이 발생하였고 전투지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기록¹⁶⁾이 있다. 온조왕 3년에 발생한 전쟁의 장소는 백제의 북쪽 변경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北境’이 A-1의 곤미천과 A-3의 칠중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A-1 전쟁은 1-2개월 정도, A-3 전쟁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전투발생지역이 慰禮城이라고 명시된 A-2 전쟁의 경우는 평양→서울 축선으로 낙랑이 기동하여 위례성을 공격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낙랑군은 이 전투 발생 4년 전에 확정된 백제의 북쪽 국경인 패하¹⁷⁾를 건너 A-1 전투 발생지역인 곤미천, 청목산 등을 거쳐 위례성으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A-2 전쟁의 기록에 위례성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전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며, 그리고 당시 확정된 국경의 개념이 무장병력을 線으로 배치하는 개념의 국경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지역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례성에서만 양측의 병력이 접전하였다고 이해되며 전투지속기간도 위례성에서의 전투기간만 고려해야 할 것이다. A-4, 5, 6, 7전쟁은 그 발생지역이 각각 낙랑 변경, 대방의 중심지, 미상 지역, 낙랑의 서현 등으로만 기록되어서 A-2 전쟁의 경우처럼 전투지속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3) 공 간

A-1 전투에 기록된 昆彌川, 靑木山, 烽峴은 각각 예성강, 천마산 혹은 송

16)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3년.

17)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13년.

악산, 연천군 왕징면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자는 곧미천은 천관우의 주장¹⁸⁾대로 예성강이라고 파악하고, 청목산과 봉현에 대하여는 김정호의 大東輿地圖 개풍군 부분 지도와 『大東地志』에서 “重岡複嶺兩岸壁立長谷幾二十里屈曲盤回溪中瀉而大路當其中”이라고 설명된 靑石洞 및 청석동의 동쪽에 위치한 自論峴으로 파악하고자 한다.¹⁹⁾ A-2의 慰禮城은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에 위치한 몽촌토성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⁰⁾ A-3의 七重河는 칠중성 북쪽의 임진강을 의미한다.²¹⁾ A-4는 낙랑의 남쪽 변경으로 추정되며, A-5는 대방이 위치했던 황해도 지역으로 추정되며, A-6은 책계왕이 출정하여 전사한 곳이나 그 위치는 알 수 없다. A-7은 낙랑서현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그 위치는 알 수 없다.

(4) 전투력

백제 건국 초기에 평양→서울 방향으로 말갈(A-1, 3)과 낙랑(A-2)이 백제를 공격한 전투 기록에는 말갈군과 낙랑군의 전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규모와 兵種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A-1에서의 말갈군은 백제 중앙군 200명과 싸워 승리하였고, 그 후 온조왕이 직접 인솔한 정예 기병 100명이 은거해 있던 잔여 백제군과 연결되자 물러갔다고 하였으므로, 그 규모를 추정해보면 보병 200명 보다는 그 규모가 컸으며, 기병 100명+잔여 보병 보다는 규모가 적었다고 여겨진다. A-3에서의 말갈군은 추장 素牟가 직접 지휘관으로 말갈군을 인솔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말갈군 3천명이 A-3 전쟁이 발생하기 10년 전인 온조왕 8년에 위례성을 공격하였다는 기록²²⁾과

18)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하」, 『한국학보』 3, 1976.

19) 김정호, 『大東地志』 권2, 개성부 山水조.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588쪽.

21) 『三國史記』 권35, 잡지 지리2 한주 래소군 중성현조.

22)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8년.

관련시켜 볼 때 3천명 정도의 말갈군이 전투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2에서 낙랑군은 백제 수도인 위례성을 방화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한 백제군은 A-1, 3의 전투에서 국왕이 직접 지휘관으로 출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A-2도 수도인 위례성이 공격을 받았으므로 국왕이 직접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1은 규모와 병종이 보병 200명과 기병 100명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평양, 서울 양방향 이외 다른 곳에서 발생한 전투기록으로 온조왕 22년에 기병 1,000명을 대동하여 부현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갈군을 만나 접전하였다는 기록²³⁾과 온조왕 34년에 마한이 반란을 일으키자 온조왕은 직접 5,000명의 군사를 지휘하여 이를 토벌하였다는 기록²⁴⁾이 있다. 따라서, A-2, 3의 경우에도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백제는 기병 1천명과 그에 상응하는 보병을 동원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세기에 발생한 평양→서울 방향의 전투인 A-6의 경우 공격한 중국 세력 및 맥인과 방어한 백제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쌍방 전투력의 규모와 병종은 알 수 없으나, 백제의 국왕이 이 전투에서 전사할 정도였으므로 양측이 보병과 기병의 병종 및 5천명 이상의 규모로 접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A-4의 경우는 고이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권을 왕권 아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左將의 관직²⁵⁾에 처음으로 올랐던 眞忠을 파견한 경우인데, 이보다 20-30년 전인 초고왕 49년(214년) 북부의 진과에게 1,000명의 군사를 주어 말갈을 공격하게 한 기록²⁶⁾과, 구수왕 9년(222년) 군사를 보내어 5,000명의 신라군을 대파한 기록²⁷⁾ 등과 관련시켜 볼 때, A-4 전투에 동원한 백제군 전투력의 규모와 병종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병이 포함된 수 천명의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대응한

23)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22년.

24)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34년.

25) 『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 고이왕 7년.

26)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초고왕 49년.

27) 『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 구수왕 19.

낙랑군의 경우는 위 관구검의 요구에 응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하여 정예병을 고구려 방면으로 집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백제군을 상대한 낙랑군은 변경의 미약한 군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5 전투에서 백제가 어떤 규모의 부대를 파견하여 위기에 처한 대방을 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백제왕이 대방왕의 사위였다는 사실과 고구려의 대방 정벌이 실패하였고, 고구려가 백제의 군사행동에 대하여 원망하였으며, 백제가 이를 두려워하여 수도의 성을 정비하였다는 전투 결과로 볼 때, 기병이 포함된 다수의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에 대응한 고구려군의 규모나 병종은 이 전투 30-40년 전인 동천왕 20년(246년) 위의 침략시 대응한 고구려군이 보기 20,000명 및 철기군 5,000명이었다는 기록²⁸⁾과 중천왕 12년(259년) 역시 위의 침략시 대응한 고구려군이 기병 5,000명이었다는 기록²⁹⁾ 등을 관련시켜 생각할 때, 기병이 포함된 다수의 군대를 파견하여 대방을 정벌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A-7 전쟁은 ‘潛師’라고 한 데에서 공격한 백제군의 규모가 적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5) 결 과

A-1 전쟁은 ① 백제군의 패배 ② 국왕이 지휘한 백제구원군의 승리 ③ 말갈 철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백제로서는 영토를 상실한 전쟁은 아니었다. 기록에 나타난 ‘我軍敗績’에서 사상을 당한 백제군의 규모는 알 수 없다. A-2 및 A-6 전쟁은 백제의 수도가 불타고 국왕이 전사할 정도로 큰 피해를 백제가 입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A-3 전쟁은 백제군이 승리하여 침략한 말갈군의 추장을 포로로 잡고, 나머지 포로는 모두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넣어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4 전쟁은 백제군이 지역은 확장

28) 『三國史記』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

29) 『三國史記』 권17, 고구려본기 중천왕 12년.

하지 않고 다만 낙랑주민을 포로로 잡아 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낙랑으로부터 보복침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포로로 획득한 주민들을 모두 돌려주는 조치를 하였다. A-5 전쟁은 대방을 구원하여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전투인데, 이 전투 후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여 수도 방어준비를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랐다. A-6 전쟁은 백제가 방어하다가 국왕이 전사할 정도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패배한 전투였다. A-7 전쟁은 백제가 낙랑의 영역을 탈취한 전투였다.

이와 같은 제1기 전쟁의 결과는 대체로 백제가 한강유역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팽창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제는 수도가 불타고, 국왕이 전사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여야 했다.

(6) 전술 전략

먼저, 특이한 점은 제1기 전쟁의 양상이 A-2를 제외한 모든 경우가 城戰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백제가 방어한 4회의 전투 중 3회의 경우에 적군의 침입 사실에 대하여 변경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침입해오는 적에 대하여 전투하기에 유리한 지점으로 군대를 이동시켜 적을 맞아 접전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1 전쟁은 “拒戰於昆彌川上”이라고 기록되어 전쟁이 水戰으로 치러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백제군의 상대가 말갈이었던 점, 패배한 백제군이 청목산으로 철수하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곧미천의 상류 지방에서 치러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패배한 백제군이 청목산으로 철수하여 있다가 국왕이 지휘한 구원군과 합류한 사실에서 백제군의 지휘정보통신체계가 발달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A-4 전투에서는 적의 전투력이 다른 곳으로 지향된 점을 이용하여 공격한 데에서 백제군이 정보전술을 이해할 수 있다. A-7 전투에서는 백제군의 기습공격전술이 확인된다.

3. 고구려, 백제의 주도권 쟁탈기 전쟁

제2기는 대동강 유역에 있던 중국세력이 축출된 이후 평양, 서울 양방향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상호 투쟁하여 결국 고구려 장수왕대의 백제 수도 한성에 대한 공격으로 마무리된 시기인데, 기간 중에 발생한 전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A-8 369년 : 고구려가 백제의 치양을 공격(고국원왕 39년)³⁰⁾
- A-9 371년 :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근초고왕 26년)³¹⁾
- A-10 375년 : 고구려가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소수림왕 5년)³²⁾
- A-11 376년 : 고구려가 백제의 북쪽 변경을 공격(소수림왕 6년)³³⁾
- A-12 377년 :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근구수왕 3년)³⁴⁾
- A-13 386년 :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고국양왕 3년)³⁵⁾
- A-14 389년 : 백제가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공격(진사왕 5년)³⁶⁾
- A-15 390년 : 백제가 고구려의 도감성을 공격(진사왕 6년)³⁷⁾
- A-16 391년 : 고구려가 백제의 석현성 등 10성, 관미성을 공격(광개토왕

30)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백본기).

31) 秋九月 高句麗舉兵來 王聞之 伏兵於浪河上 俟其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백본기).

32) 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拒之 不克 王又遣將大舉兵報之 以年荒不果(백본기).

33) 冬十一月 侵百濟北鄙(고본기).

34) 冬十月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十一月 高句麗來侵(백본기).

35) 秋八月 王發兵 南伐百濟(고본기).

36) 秋九月 王遣兵侵掠高句麗南鄙(백본기).

37) 九月 王命達率眞嘉謨 伐高句麗 拔都坤城 虜得二百人 王拜嘉謨爲兵官佐平(백본기).

원년)³⁸⁾

- A-17 393년 : 백제가 고구려의 관미성을 공격(아신왕 2년)³⁹⁾
 A-18 394년 : 백제가 고구려의 수곡성을 공격(아신왕 3년)⁴⁰⁾
 A-19 395년 : 백제가 고구려의 패수를 공격(아신왕 4년)⁴¹⁾
 A-20 469년 : 백제가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공격(개로왕 15년)⁴²⁾
 A-21 475년 :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공격(장수왕 63년)⁴³⁾

6하원칙에 따라서 제2기의 전쟁을 분석하기에 앞서, 제2기 전쟁을 개관해보면 평양→서울 방향의 전쟁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것으로 총 13회 중 6회였으며, 서울→평양 방향의 전쟁은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한 것으로 7회 발생하여, 양국이 매우 치열하게 공방전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원 인

A-8은 고구려의 남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남진의 배경은 미천왕대 중국 군현의 구축에 따른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완충 지대의 제거, 모용씨 세력이 중원으로 관심을 돌림으로 인해 요동 지역에서 전쟁 위

38) 秋七月 高句麗王談德 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岘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 / 冬十月 高句麗攻拔關彌城(백본기).

39) 秋八月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 謀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岘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引而歸(백본기).

40) 百濟來侵 王率精騎五千 逆戰敗之 餘寇夜走 八月 築國南七城 以備百濟之寇(고본기).

41)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伐高句麗 麗王談德 親帥兵七千 陣於湏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冬十一月王愆報湏水之役 親帥兵七千人 過漢水 次於青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廻軍至漢山城 勞軍士(백본기).

42) 秋八月 百濟兵侵入南鄙(고본기).

43) 九月 王帥兵三萬 侵百濟 陷王所都漢城 殺其王扶餘慶 虜男女八千而歸(고본기).

협이 사라지게 된 점,⁴⁴⁾ 그리고 동천왕 20년(246년) 위 관구검의 침입과 고국원왕 12년(342년) 모용씨의 침입에 의해 수도가 함락된 사실 등이 지적될 수 있다.

A-9전쟁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백제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하게 한 전투인데, 고구려의 공격 사실은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는 기록되지 않고 백제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A-8 전쟁의 실패에 따른 추가 공격으로써 그 원인은 A-8 전쟁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 燕이 진의 부견에 의해 370년에 멸망한 사실이 고구려 측에 인지되어 369년 전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남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이라고 파악된다. 이 전쟁 후반부에 기록된 백제군의 평양성 공격은 고구려의 2차례에 걸친 남진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백제가 보복 공격⁴⁵⁾을 한 전쟁으로써 심리적인 원인이 작용하였다고 여겨진다.

A-10, A-11 전쟁은 고국원왕이 A-9 전쟁에서 사망한 이후 국력을 회복한 고구려가 전왕의 사망에 대한 보복 전쟁으로써 남진을 추진한 결과 발생한 전쟁이라 파악된다. A-12 전쟁은 A-11 전쟁의 보복으로 실시된 것으로 여겨지고, A-13 전쟁은 고구려가 남진을 추구하고 백제는 이에 대항하여 방어를 하는 국면으로 파악된다. A-14, A-15 전쟁은 A-13 전쟁에 대한 백제의 보복 공격으로 파악된다. A-16 전쟁은 광개토왕 1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경우도 A-15 전쟁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여겨진다. 특히 A-16 전쟁은 고구려의 백제 공격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한 최초의 전쟁으로써 처음으로 영역을 확대한 기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전쟁은 영역의 확장을 통한 경제력의 증진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4) 고국원왕 25년 12월에 왕모의 송환이 이루어졌고, 고구려가 연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점으로 보아 고구려와 연 사이에는 일시적인 평화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이해된다.

45) 『일본서기』 권9, 신공기 49년조에 의하면, 백제는 근초고왕 24년(369) 전남 지역으로 출정하여 마한의 나머지 소국들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화된 상태였다.

A-16 전쟁의 경우는 漢水以北의 백제 영역이 모두 고구려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69년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20여년 만에 한강 이북의 점령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는 동시에, 이전까지는 예성강 유역과 황해도 지역이 고구려와 백제의 각축장이었던 것에서 이제부터는 한강 유역이 본격적으로 戰場化되는 경향을 여는 시초라 하겠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는 지역(關彌城)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군사 전략적인 판단이 개입된 전쟁이라 여겨진다.

A-17은 “關彌城者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라 하여 A-16 전쟁에서 고구려에게 빼앗긴 관미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백제가 공격한 전쟁이다. A-18, A-19 전쟁은 A-17 전쟁이 실패로 끝나자 상실한 한수 이북 지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백제가 공격한 전쟁이다. 특히 A-19 전쟁은 “王欲報溟水之役”이라고 하여 보복이라는 출병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A-19 전쟁(395년)부터 A-20 전쟁(469년) 사이의 70여 년간은 고구려·백제간에 전쟁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개로왕 18년 백제가 위에 보낸 국서⁴⁶⁾에 의하면, 馮弘이 고구려로 망명한(436년) 이후 30여 년간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침략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395년부터 469년 사이의 기간에도 고구려·백제간에는 빈번한 전쟁이 있었고, 그것은 주로 고구려의 공격에 의해 전쟁이 수행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三國史記』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만, 개로왕이 위에 사신을 보내어 당시의 상황을 알린 국서 기록 후에 “고구려 사람이 누차 국경을 침범하므로 표를 올려 군사를 청하였는데……”라는 기록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A-20 전쟁은 이상에서 살핀 장수왕대의 수차에 걸친 침략을 보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A-21 전쟁의 원인은 “高句麗長壽王陰謀百濟”⁴⁷⁾라고 막연하게만 표현되어 있으나 遠因은 고구려의 남진 정책의

46) 『三國史記』백제본기 개로왕 18년조.

47) 『三國史記』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

추구에서 찾아지고, 近因은 개로왕이 魏에 國書를 보낸 사건으로 파악된다.

(2) 시 간

먼저, 전쟁이 발생한 月(음력)과 季節에 대하여 살펴보자. 서울→평양 방향으로 백제가 공격한 전투인 A-9, 12, 14, 15, 17, 18, 19, 20의 경우는 각각 10월, 10월, 9월, 9월, 8월, 7월, 8월, 8월에 발생하여 계절은 가을에 집중되었음이 확인된다. 평양→서울 방향으로 고구려가 공격한 전투인 A-8, 10, 11, 13, 16, 21의 경우는 각각 9월, 7월, 11월, 8월, 7월과 10월, 9월에 발생하여, 계절은 가을과 겨울에 집중되었음이 확인된다. 양방향의 전투를 종합해 보면,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가장 많은 빈도인 11회이며, 그 다음은 겨울이 4회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월은 8과 9월이 4회로 가장 많았고, 7월과 10월이 3회로 확인되었다.

제2기 전쟁은 제1기와 마찬가지로 전쟁지속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경우는 한번도 없다. 그러나, 제2기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중국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기에 비하여 전투지속기간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런데, 제2기의 기록을 전쟁지속기간 추정을 위하여 분류해 보면, ①○월에 고구려(백제)가 백제(고구려)의 어느 지역을 공격, ②○월에 고구려(백제)가 백제(고구려)의 어느 지역을 공격, 백제(고구려)가 부대를 파견하여 양국의 군대가 동일 지역(혹은 다른 지역)에서 접전, ③○월에 고구려(백제)가 백제(고구려)의 어느 지역을 공격, 백제(고구려)가 부대를 파견하여 양국의 군대가 동일 지역(혹은 다른 지역)에서 접전, ●월에 백제(고구려)가 고구려(백제)를 공격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⁴⁸⁾ A-11, 13, 14, 15, 16,⁴⁹⁾ 17, 20, 21⁵⁰⁾은 ①의 경우에

48) 전쟁 기록 다음에 □월을 표시하면서 다른 기사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지속기간은 ①, ②의 경우는 ○월에서 □월 이전까지, ③의 경우는 ○월에서 ●월을 거쳐 □월 이전까지라고 고려할 수 있으나, 三國史記의 찬자가 과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전쟁기

해당하고, A-8, 10, 18, 19는 ②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쟁지속기간은 1개월 이내였으며, A-9, 12은 ③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A-9와 A-12는 1-2개월 이내로 여겨진다.

(3) 공 간

평양→서울 방향으로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6회 중 A-11, A-13은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는 南伐, 백제본기에는 來侵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전쟁 지역과 전쟁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국의 國境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나머지 4회의 경우는 모두 고유명사로 전쟁 지역이 기록되어 있다. 서울→평양 방향으로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한 8회 중 A-14, A-20은 高句麗南鄙라고 기록되어 있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경우와 같이 국경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6회의 전쟁은 모두 지역이 명시되어 있다.

A-8 전쟁의 雉壤에 대해서는, 중국 군현 세력이 축출된 상태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최초로 충돌할 수 있는 곳은 현재의 황해도 지역일 것이라는 추측 하에서 『三國史記』 권37, 잡지6, 지리지4, 高句麗 漢山州에 보이는 “刀臘縣 一云 雉嶽城”이라고 한 기록과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白川郡 건치연혁조에 “白川郡은 本 高句麗 刀臘縣”이라는 기록에서 이병도 선생이 백천⁵¹⁾으로 추정할 바 있다. 필자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⁵²⁾ A-9, A-19 전쟁

록을 서술하였을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따라서 전쟁지속기간은 관련 기록에 표현된 대로 해석하여 ①, ②의 경우는 ○월의 일정 기간, ③의 경우는 ○월에서 ●월까지의 일정기간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무난하리라 생각된다.

49) A-16 전쟁의 관미성 공격은 20일이 소요되었다고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50) A-21 전쟁의 北城 전투에서는 7일이 소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51)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상, 334쪽.

52) 필자는 「신라 통일전쟁사의 군사학적 연구」, 1995의 교원대 박사학위논문에서 치양을 춘

의 溟河는 예성강으로 파악한 견해⁵³⁾를 수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溟河上이라고 기록된 上에 주목할 때 패하에서 양국이 水中戰을 치렀다고도 볼 수 있고, 패하의 南岸에서 하천선 전투를 치른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백제 측에서 미리 伏兵을 운용한 것으로 보아 후자가 옳다고 여겨진다. A-9, A-12 전쟁의 平壤城의 위치에 대하여는 남북의 학계가 매우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현재의 평양으로 파악하는데 비하여,⁵⁴⁾ 북한 학계에서는 4세기 중엽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황해도 지역에 경영한 南平壤(황해도 신원군 신원읍의 동부와 아양리, 월당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다.⁵⁵⁾ A-9 전쟁 기사에는 王引軍退, 移都漢山라 하여 이 공격 후 백제가 漢山으로 도읍을 옮긴 것을 적고 있다. 이병도는 고구려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春宮里 지역으로부터 현재의 南漢山으로 수도를 이동한 것으로 보아 漢山을 남한산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⁵⁶⁾ 북한 학계에서는 『고려사』 지리지의 안주조에 본 고구려의 식성군인데 다른 이름은 漢城郡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고구려가 경영한 남평양으로 파악하고 있다.⁵⁷⁾ 평양성과 한산에 대한 위치 비정에 있어서는 남북한 학계가 이상과 같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⁵⁸⁾ 그런데, 백제본기의 王引軍退, 移都漢山라고 한 표현에 유의할 때 북한 학계의 견해를 받아들이기에는 주저된다. 이 표현을 “(근초고왕이 평양성 공격에서

천으로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이병도 선생의 견해대로 치양이 황해도 백천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으므로 수정한다.

53)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상, 27쪽.

54)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이기백·이기동 공저, 『한국사강좌』 고대편.

55) 손영중,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174-187쪽.

56)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상 34쪽.

57) 손영중, 『고구려사』, 178쪽.

58) 이병도의 견해는 『三國史記』에 기록된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손영중으로 대표되는 북한 학계의 견해는 4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가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위 “남평양 경영설”을 토대로 한 것이다.

고국원왕을 전사하게 한 후)군을 인솔해 물러났고, (고구려의 침략을 우려해)한산으로 이도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병도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三國史記』 백제본기 아신왕 4년 11월조에는 동왕 동년 8월의 溟水전쟁의 패전을 보복하기 위해 출정한 백제군이 漢水를 건너 靑木嶺下에 진주하였다가 대설을 만나 漢山城으로 회군하여 군사를 위로한 기사⁵⁹⁾가 보이는데, 이 때의 漢山城은 A-9 전쟁 기사에 보이는 근초고왕 26년에 移都한 漢山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산은 북한 학계의 견해보다는 이병도의 견해인 남한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A-10, A-18 전쟁의 水谷城은 『三國史記』 지리지 2의 永豐郡 檀溪縣조에 “본 고구려 水谷城縣인데, 현재의 俠溪縣”이라는 기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신계현 고적조의 “俠溪廢縣이 원래 고구려의 수곡성현”이라는 기사에 의해 황해도 신계현으로 비정되고 있다.⁶⁰⁾ A-15 전쟁의 都坤城(백제본기), 都押城(고구려본기)은 동일한 지역이 달리 표현된 경우인데, 전쟁 지역이 고구려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구려본기에 서술된 都押城이 옳을 듯하고 도압성은 고구려 대에 屈押縣이라고 한 江陰縣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⁶¹⁾

A-16, A-17 전쟁의 石岷城을 비롯한 10여성은 백제본기에 北鄙…… 漢水以北이라고 한 표현에 유의하면 대략적인 위치가 한수 이북으로 한정된다. 석현성은 『三國史記』 지리지 三國有名未詳地分에 포함된 지명으로 그 자세한 지역은 알 수 없다.⁶²⁾ 關彌城은 석현성과 같이 『三國史記』 지리지 三國

59) 『三國史記』 백제본기 아신왕4년 11월조: 王欲報溟水之役, 親帥兵七千人過漢水, 陣於靑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廻軍至漢山城, 勞軍士.

60) 이병도, 손영중은 이상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新溪로 파악하고 있다.

61) 都押이라는 지명과 관련이 있을 듯한 지명을 황해도, 평안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찾아 보면 『三國史記』 지리지 2, 江陰縣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3, 江陰縣 건치연혁조의 屈押縣이 보이는데, 이 屈押이 都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62) 이병도는 『역주 三國史記』 상 322쪽에서 개풍군 청석동(?)으로 추측한 바 있고, 손영중도 『고구려사』 297쪽에서 개성 북방 청석령 부근(?)으로 추측한 바 있으나, 근거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有名未詳地分에 포함된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병도는 강화의 喬桐島로 비정한 바 있고, 박시형은 A-9 전쟁 기사에 나타나는 關彌城과 동일한 지명으로 보고 그 지역은 대략 예성강 하구 지역으로 비정한 바 있고,⁶³⁾ 최근에 이도학은 송악산 북쪽 방향의 靑石洞을 관미성⁶⁴⁾으로, 윤일영은 파주군 교하면의 오두산성으로 추정한 바 있다.⁶⁵⁾ 그런데, 고구려 군이 석현성 등을 함락한 후, 그 여세를 몰아 곧바로 백제의 중요 군사 거점인 관미성을 공략한 것으로 이해되어 석현성 등 10여성보다 지역적으로 더 남쪽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其城四面峭絶, 海水環繞이라는 기사와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彌城이라는 기사가 있어 관미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는데, “海水가 둘러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지역은 바다와 연한 성일 가능성이 크며, 석현성 등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관미성을 점령하려고 백제군이 공격하였으므로 관미성은 석현성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탈취해야 할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관미성의 위치는 예성강 하구 또는 한강 하구일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으로는 윤일영이 말한 오두산성⁶⁶⁾일 것이라고 파악된다.

A-16 전쟁의 광개토왕비에는 광개토왕이 殘國을 토벌하기 위해 군을 출동하여 58성, 700촌을 함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城名은 37-46개이다.⁶⁷⁾ 각성들의 위치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63)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상 49쪽.

박시형, 『광개토왕릉비』, 1966, 174-176쪽.

64) 이도학은 『三國史記』 백제본기 온조왕 10년조의 대말갈 방어 전투 기사에서 昆彌川상에서 전투를 하다가 백제군이 철수한 지역으로 나타나는 靑木山에 주목하여 곧미천을 예성강, 청목산을 청목령으로 파악하면서, 청목령이 후대에 관미성으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13).

65) 윤일영, 『관미성위치고』, 『북악사론』 2, 1990.

66) 교동도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만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주목되나, 그것보다는 공격한 백제군에 수군이라는 기록이 없고, 통상적으로 육상에서의 성 방어시 고구려군이 구사하던 영성고수전술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오두산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

67)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 1990, 26쪽에 의하면 37개 城名이 확인되고, 손영중, 『고구려사』, 303쪽에 의하면 46개 城名이 확인된다.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에 정리된 바에 의하면, 閼彌城(관미성-예성강 하구: 이병도, 교동도: 박시형), 阿旦城(서울 아차산성;), 古利城(豊壤城-양주 속현; 이병도), 勾牟城(工木達-연천; 이병도), 彌鄒城(인천-『三國史記』 지리지 한주 소성현조), 也利城(耶耶城, 夜牙城-장단; 박시형, 이병도) 등 6개 성을 들고 있으며, 『고구려사』에서는 彌鄒城(미추홀-인천), 古牟婁城(고산성-충북 음성), 勾牟廬城(대모산성-충북 진천), 細城(충남 목천), 阿旦城(철원 또는 서울), 牟廬城(멸오성-경기 용인), 沸城(비사성-경기 통진) 등 7개 성을 확인하고 있다.⁶⁸⁾ 남한 학계에서는 이 때 정복한 성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한강 이북 지역으로 파악하는 데 비하여, 북한 학계에서는 충청도 지역⁶⁹⁾까지로 내려 잡고 있는 점이 비교가 된다. 그런데 비문에서 고구려 군이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던 성은 阿利水를 건너 공격한 성이라고 하면서 그 성의 함락 후에는 백제 왕으로부터 奴客이 되겠다고 항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었으므로 漢城이 될 것인 바, 이 전쟁에서의 전투 지역은 대체로 한강 이북으로 한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A-17 전쟁에서는 北城, 南城 등에서 공방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北城은 창의문 근처, 南城은 남한산성으로 비정한 이병도의 견해를 따른다.⁷⁰⁾

(4) 전투력 비교

A-8 전쟁에서 고구려는 步騎二萬을 동원하였고 國王이 직접 출전한 것으

68)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 1990, 26쪽.

손영중, 『고구려사』, 303쪽.

69) 酒井改藏은 「好太王碑面の地名について」, 『朝鮮學報』 8, 1955, 51-63쪽에서 이 전쟁의 작전 지역을 충남 일원에까지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0)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하 44쪽.

『일본서기』 권14, 용략기 20년조에는 북성 전투에 대한 언급은 없고 大城에서 七日七夜를 전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南城에서의 전투를 지칭한다.

로 보아 중앙군이 기동한 것으로 여겨지며, 백제는 太子를 파견하여 대응하였다. 백제군 기동 부대의 규모는 步騎二萬의 고구려 군을 격파하고 五千餘級을 포로로 잡은 것으로 보아 고구려 군에 상응하는 규모의 기동 부대가 출동한 것으로 여겨지며, 兵種에 있어서도 徑至雉壤하여 急擊하였다는 기록에 주목할 때 보병과 기병의 협동군을 보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9 전쟁에서 백제군의 경우 고구려의 침공을 보고 받은 近肖古王이 고구려군의 機動路를 예상하고 溟河上에 복병을 운용하였다는 기록에 의해 중앙군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후반부의 평양성 공격은 패하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실시하였는데, 백제군은 精兵三萬을 왕과 태자가 지휘하고 戰場이 평양성인 것으로 보아 기병이 포함된 중앙군으로 편성된 기동 부대를 출동한 것으로 여겨진다.⁷¹⁾ 고구려의 경우는 고국원왕이 戰死한 것으로 보아 보기 협동의 중앙군이 대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A-10 전쟁에서 백제군의 경우 水谷城이 함락된 보고를 받은 근구수왕이 遣將하여 탈환을 시도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중앙군이 출동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A-11, A-13 전쟁에서는 공격군과 방어군의 전투력 요소에 대해 기록이 없으나, A-13의 경우 王發兵이라고 한 것에서 고구려의 중앙군이 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2 경우의 전쟁에서 백제는 중앙군을 출동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고 지방군이 대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A-12 전쟁은 近仇首王이 三萬의 병을 인솔하여 평양성을 공격한 전쟁이므로 A-9 전쟁과 마찬가지로 기병을 포함한 중앙군을 출동한 것으로 여겨지며, 고구려 군의 경우는 알 수 없다. A-14 전쟁에서는 다른 요소는 알 수 없고 王遣兵이라고 한 데에서 백제군의 중앙군이 출동한 것은 확인할 수 있고, (高句麗)南鄙部落而歸라고 한 고구려 측의 기록으로 고구려는 지방군이 맞아 전쟁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A-15 전쟁에서 王命達率眞嘉謨라 하였으므로 백제군의 기동 부대의 병종과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중앙군이 출동하였음을

71) A-8 전쟁에서 백제군이 기병을 운용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 전쟁에서 장거리를 원정한 점으로 보아 역시 기병을 동원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알 수 있고, 지휘관의 官階가 16등 중 2위에 해당하는 達率로 기술된 점 그리고 근초고왕 대부터 왕비족으로써 백제의 중앙 관부에서 많은 권력을 행사하던 眞氏⁷²⁾의 眞嘉謨가 지휘관으로 나타나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이 전쟁에서의 고구려 군의 전투력은 나타나지 않으나, 공격 목표였던 都押城 함락 후 二百人을 포로로 획득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지방의 城兵이 방어한 것을 알 수 있다.

A-16 전쟁은 광개토왕 2년 7월과 10월에 있었는데, 10월의 전쟁은 7월 전투에서 승리한 고구려군이 백제의 주요 군사 거점인 關彌城을 공략한 전쟁이므로 두 전쟁에서의 고구려군은 동일한 기동 부대를 운용하였을 것이다.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關彌城……海水環繞의 기록에 의해 고구려군의 기동 부대는 보병, 기병의 협동군 외에 水軍도 운용하였음이 확인되며, 광개토왕비에는 고구려 군의 전투력을 시사하는 기사는 王躬率■軍으로만 나타나 있어 광개토왕이 직접 중앙군을 인솔해 출정한 것만 확인될 뿐 기동 부대의 병종⁷³⁾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同碑의 407년 기사에는 광개토왕이 직접 출전하지 않고 파견한 기동 부대의 규모가 5만이었고, 광개토왕 10년 庚子조에 教遣步騎五萬이라고 한 점을 통해 볼 때 적어도 五萬 이상의 군을 출동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한 백제군은 석현성 등의 피침시에는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라는 기록을 통해 중앙군은 출동치 못하고 지방군이 맞서 전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도 한성 전투에서는 백제의 중앙군이 전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A-17 전쟁에서는 백제의 중앙군 一萬을 佐將 眞武가 인솔한 것으로 나타

72) 이기백, 『백제왕위계승고』, 『역사학보』 11, 1959, 35쪽.

양기석, 『백제전제왕권성립과정연구』, 1990,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0, 64-66쪽.

73) 비문의 ■軍은 水軍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역주한국고대금석문 1』, 10쪽에 의하면 전간 공작, 유승간, 박시형, 왕건군, 이형구, 박노희 등이 ■자를 水로 읽고 있으며, 수곡제이랑, 무전행남은 ■자를 읽을 수 없는 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지명을 살핀 결과 해안 지역이 많으므로 水軍으로 파악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나며, 관미성을 오랫동안 포위한 것으로 보아 水軍도 동원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眞武는 앞에서 언급한 진씨 세력으로써 이 전쟁 직전에 좌장으로 임명되면서 兵馬事를 관장한 인물⁷⁴⁾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백제의 군사 분야 최고 지휘관이 출정한 전쟁이었다고 여겨진다. 고구려 측의 전투력은 관미성을 지키던 城兵이 독자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파악된다. A-18 전쟁에서의 백제군의 전투력은 백제의 침략을 받은 고구려 측에서 광개토왕이 직접 출전한 것으로 보아 백제의 중앙군이 출동한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고구려는 王率精騎五千이라 하였으므로 중앙군 소속의 정예 기병을 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A-19 전쟁에서는 백제 기동 부대의 규모를 시사하는 死者八千人(백제본기), 虜獲八千餘級(고구려본기)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백제군의 규모가 二萬 정도는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⁷⁵⁾ A-20 전쟁은 공격한 백제군은 중앙군 일부가, 방어한 고구려군은 지방군이 전투에 임하였다고 여겨진다. A-21 전쟁에서 고구려군은 장수왕이 三萬의 중앙군을 인솔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對廬의 관계에 있었던 齊于, 再曾桀婁, 古尔晩年 등이 지휘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한 백제군은 중앙군을 비롯한 지방군이 수도 방어를 위해 동원되었을 것이다.

74) 『三國史記』 백제본기 아신왕 2년조.

75) 백제군의 규모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의 수치를 더한 것이다. 물론 死者와 虜獲을 동일한 사실의 다른 기록이라고 보아 백제군의 규모를 1만 정도로 내려잡을 수도 있다(김종선은 「삼국 시대의 전쟁 포로에 관하여」, 『역사학보』 136, 19-20쪽에서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의 기록을 같은 사실에 대한 상이한 기록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백제본기가 이 전쟁의 피해를 줄이는 입장에서 자국민을 의식해 포로로 잡혀간 8천인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을 가능성이 크며, 고구려본기에 사자의 수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노획해 간 수치가 고구려 측에 의미가 있지 전장에서 죽인 적군의 수치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三國史記』 백제본기 아신왕 4년 11월 조에는 이 전쟁을 보복하기 위해 아신왕이 직접 군을 인솔해 한강을 건너 청목령까지 진출한 기사가 있다. 따라서 그만큼 이 전쟁에서의 백제 측의 피해는 컸을 것이다.

(5) 결 과

A-8 전쟁은 영토 확장이 목표였으나 백제 군에게 기습을 당하여 五千餘級이 포로로 잡힌 실패한 전쟁이었다. 이 때 오천여 명이 포로로 잡힌 것⁷⁶⁾으로 보아 다수의 사상자 발생도 추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숫자와 상응하는 다량의 兵器와 다수의 戰馬를 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A-10 전쟁도 영토 확장을 목표로 출전하여 水谷城을 함락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백제의 증원군 도착에 의해 실패하였다. A-11, 13 전쟁은 목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전쟁인데, 소규모의 전쟁을 국경 부근에서 실시한 것만 알 수 있을 뿐, 전쟁 결과 요소는 알 수 없다.

A-16 전쟁은 영토 확장이 목표였는데 石峴城 등의 10개 성을 함락하고 漢水以北의 부락들이 고구려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므로 성공한 전쟁으로 파악된다.⁷⁷⁾ 한편 10월의 軍事的 要塞를 장악하는 것이 목표로 여겨지는데, 공격 20일만에 성을 함락한 것으로 보아 공격과 방어 양측의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알 수 있다. 광개토왕비에 표현된 전쟁은 58성 700촌을 얻었다는 기록에 의하면 영토 확장과 함께 백제의 충성 서약이 목표였고 그것을 달성한 전쟁이었으며,⁷⁸⁾ 백제의 王弟와 大臣10인을 인질로 잡아왔을 뿐 아니라, 男女生口 1천인을 데리고 왔으며 서약을 통해 백제 왕으로부터 奴客이 되겠다는 맹세를 받았던 성공한 전쟁이었다.

A-21 전쟁에서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지역의 확장을 가져왔고,

76) 백제는 이 포로들의 처리에 있어서 장사들에게 分賜하였던 점이 특이한데, 이들은 賤民이 되었을 것이다.

77) 이 때 한수 이북의 모든 지역이 고구려의 수중에 장악된 국경선의 이동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전쟁 2년 후인 아신왕 3년의 전쟁에서는 전쟁이 한강 유역이 아니라 수곡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78)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한성을 함락하였으나 점령하지 않고 철수하였다. 점령하지 않은 이유는 노객 서약을 받고 인질을 잡아가는 것만으로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위협은 제거될 수 있었다고 고구려 측에서 인식하였던 때문이었던 것 같다.

백제의 蓋鹵王을 전사하게 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백제 측의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유추할 수 있으며, 남녀 8천인을 획득한 성공한 전쟁이었다.

A-9 전쟁은 369년과 371년 고구려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실시한 전쟁인데,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사망케 하였으므로 보복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전쟁으로 여겨진다. 왕이 전사할 정도의 패전을 고구려 군이 당했으므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군이 평양성을 점령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보아 지역의 확보는 없었다.⁷⁹⁾

A-12 전쟁의 목표는 고구려에 대한 보복이었는데, 결과는 알 수 없다. A-14 전쟁도 보복이 목표인 전쟁인데, 侵掠……而歸라는 기록을 통해 국경 부근의 고구려 부락을 약탈하고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달성한 백제군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A-15 전쟁은 拔都押城한 기록으로 보아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한 전쟁인데, 성을 함락하고 포로 二百人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전쟁에서 지휘관으로 출전한 達率 眞嘉謨는 이 전쟁 승리 후 兵官佐平으로 승진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 기록은 고구려·백제간 전쟁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戰功者 포상 기록이다. 고구려는 성을 지키던 고구려 군사는 다수가 살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A-17 전쟁은 관미성이라는 군사적 요새지의 회복을 목표로 한 전쟁인데, 고구려 측이 嬰城固守戰術을 구사함으로써 장기전을 치렀던 전쟁이다. 糧道가 끊어진 백제군은 철수하였으므로 실패한 전쟁이라고 여겨지며, 장기전으로 인해 백제 측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A-18 전쟁은 A-10 전쟁에서 상실한 수곡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백제군은 실패하였다. A-19 전쟁은 영토 회복과 함께 A-18 전쟁의 실패를 보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전사자 8천, 포로 상실 8천을 당하였다. A-20 전쟁은 결과를 알 수 없다.

79) 평양성을 점령하지 않고 철수한 것은 백제의 이 전쟁이 복진을 통한 영토의 확장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친 고구려의 침공에 대한 보복이 목표였음을 알게 해준다.

(6) 전술 전략

A-8 전쟁의 유형은 野戰으로 여겨지며, 고구려 군이 기습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 警戒 전술에서 취약점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백제 군은 邊境에서의 피침 사실을 수도에까지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연락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태자로 하여금 徑至雉壤하도록 조치한 점, 그리고 기습을 실시하여 대파한 점 등을 통해서 情報 전술, 行軍 전술, 奇襲 전술 등을 구사한 것이 확인된다.

A-10 전쟁의 유형은 城戰이며 『三國史記』 백제본기에 “1차례의 중앙군에 의한 탈환 작전이 실패하자 재차 구원군을 보내어 보복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백제는 자국의 영토를 적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11, 13 連戰連敗한 고구려가 일종의 消耗戰을 구사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백제의 변방을 침공한 전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 전쟁의 유형은 野戰으로 파악된다.

A-16 전쟁의 유형은 城戰인데, 이 전쟁 기사에는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되는데, 그 첫째는 백제가 첩자를 사용하여 고구려의 實情을 탐지한 결과 광개토왕의 용병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싸워서 자국군의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병하지 않고 지역을 양보하는 차원에서 漢水以北을 방치하는 漢水死守戰略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백제의 정보 전술 능력과 현실적인 군사력 보존 전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고구려 측에서 광개토왕의 군사적 천재성을 유포하여 백제로 하여금 한수이북을 포기하게 하였다고 본다면, 이것은 고구려의 전략으로써 『손자』에서 이야기한 소위 不戰勝戰略이라 할 것이다.⁸⁰⁾ 10월의 관미성 전쟁은 역시 城戰인데, 고구려 군이 공격 기세를 유지하여 백제의 주요 군사

80) 『손자』 謀攻篇: 不戰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

거점인 관미성을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據點確保 전략을 엿볼 수 있으며, 分軍七道攻擊二十一乃拔이라고 한 데에서 분산 공격 전술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 군의 경우 其城四面峭絶,海水環繞이라고 한 기사에서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성한 백제의 축성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二十一日간을 지탱하였다는 점에서 嬰城固守 戰術을 확인할 수 있다. 광개토왕 비에 기술된 전쟁의 유형은 城戰과 함께 野戰도 치러진 것으로 파악되며, 渡阿利水라고 한 데에서 고구려 군의 渡河 전술도 확인된다.

A-21 전쟁은 역시 城戰인데, 麗人分兵爲四道夾攻,又乘風縱火,焚燒城門이라고 한 기사에 의하면 고구려 군의 分散挾攻 전술과 함께 火攻 전술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고구려 장군으로 등장하는 再曾築婁와 古尔萬年 등은 백제인으로써 고구려로 망명해 장군으로 출전한 자들인데, 이들을 백제 공격에서 지휘관으로 활용한 것은 백제 방어군의 편성과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들을 이용하는 전략에서 이루어진 점을 생각할 수 있고, 당시 개로왕의 학정으로 이반되는 백제인의 민심을 망명자들을 통해 역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된 고도의 心理 전략을 계산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간첩으로 활약한 道琳의 존재가 있어서 손자가 말한 이겨 놓고 싸우는 형국⁸¹⁾으로 고구려가 이 전쟁을 주도해 나간 전쟁이라 여겨진다. 한편 백제군의 경우 閉城門, 不能出戰이라 하여 嬰城固守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A-9 전쟁의 유형은 城戰의 형태로 치러지다가 고국원왕이 出師拒之하였으므로 城外戰의 양상으로 전환되어 치러진 전쟁으로 파악된다. 溟河上에 북병을 운용하여 기습한 것으로 보아 河戰으로 여겨지며, 고구려 군이 기습을 허용한 것은 이동시 警戒 전술에서 취약점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며, 백제군은 신속한 연락보고 체계의 유지와 지형을 이용한 매복, 신속한 대

81) 『손자』 軍形篇: 勝兵, 先勝以後求戰.

道琳은 蓋鹵王에게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는 건의를 해 백제 왕실의 국력을 당진하게 하고 민심을 이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三國史記』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

응, 적이 매복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시기를 이용한 기습 등으로 보아 정보 전술, 행군 전술, 기습 전술 등을 구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溟河를 전장으로 선택한 사항은 지형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여겨진다.

A-18 전쟁의 유형은 水谷城下에서 싸웠으므로 城外戰으로 파악되며, 고구려 군의 경우 被侵 사실을 신속히 보고하여 광개토왕이 精騎를 인솔해 대응하였으므로 情報 전술과 行軍 전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19 전쟁은 溟河之上에서 전투를 하였으므로 河戰이라 여겨지고, 고구려 군의 경우 A-18 전쟁과 마찬가지로 情報 전술과 行軍 전술이 돋보이며, 백제 군의 진출로와 도하 지점을 미리 예상하고 진지를 먼저 구축해 적을 맞이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 군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전쟁이라 여겨진다.

4. 결 론

본 연구는 삼국시대의 기원전 1세기-5세기에 발생한 전쟁 중 평양-서울 축선에서 치러졌던 여러 전쟁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6하원칙에 의한 전쟁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된 것이다. 본론에서 논의된 점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백제의 세력확장기에 발생한 제1기 전쟁은 백제 건국 초에는 주로 평양→서울 방향 전쟁이, 백제가 고대국가로서의 기틀을 완성한 3세기 이후에는 주로 서울→평양 방향으로 전쟁이 치러졌고, 전투의 지속기간도 대체로 1개월 정도로 국한되었다. 제1기의 주요 전장은 평양→서울 방향의 경우는 예성강, 개성, 위례성, 칠중성 등이며, 서울→평양 방향은 주로 황해도 지역이었다. 구사된 전투력의 규모는 평양→서울 방향의 전쟁에서 백제를 공격한 중국 세력 및 말갈군의 규모는 최소 200여명, 최대 3,000여명 정도였고, 이를 방어한 백제군의 규모는 최소 200여명, 최대 5,000여명이었

다. 평양→서울 방향의 전쟁에서 백제가 구사한 전투력은 기병이 포함된 수천 여명을 동원하였다. 제1기 전쟁에서 백제는 한 차례 국왕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한강 유역에서 대동강 유역을 향하여 영역을 확대하였다.

대동강 유역의 중국 군현세력이 고구려에 의하여 축출된 이후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치열한 각축장으로 등장한 이 지역은 475년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함으로써 종결되었는데, 이 기간 중 발생한 여러 전쟁을 분석한 결과, 제2기 전쟁의 원인은 양국이 한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인 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과 보복이라는 정치·심리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2기 전쟁의 시간 요소에 있어서는 계절적으로 가을에 가장 빈도가 많았으며, 전투지속기간은 제1기와 유사하게 1-2개월 정도였다. 공간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평양→서울 방향의 전쟁은 황해도 백천, 신계, 한강 이북 경기도 지역, 한성 등이었으며, 서울→평양 방향의 전쟁은 예성강, 평양, 강음, 파주 교하 등이었다. 전투력 요소에 있어서는 평양→서울 방향의 전쟁의 경우 최대 보기 5만여명이 동원되었으며, 서울→평양 방향의 전쟁에서는 최대 보기 3만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결과 요소에서는 고구려의 경우 한 때 고구려의 국왕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광개토왕대의 한성 함락 이후의 회군과 함께, 장수왕대에 한강 유역을 점령한 것으로 이 전쟁은 종결되었다. 제2기 전쟁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구사한 전술 전략은 정보전술, 행군전술, 기습전술, 영성고수전술, 도하전술, 화공전술, 분산협격전술과 함께 부전승 전략, 소모전략 등이 구사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고구려에 의하여 점령된 대동강에서 한강 유역에 이르는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략적 요충지역은, 이후 백제가 반드시 회복하고자 한 지역이 되었으며, 한반도의 동남부 지방에서 그 세력을 급속히 팽창한 신라가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으로 변하여 삼국간에 이 지역은 6세기 이후 더욱 치열한 각축장으로 화하였다.